'운봉선사 법어' '향곡선사 법어' 두 스님의 법어록 재편 '출간'



향곡선사문도회는 운봉스님 55주기 및 향곡스님 20주기를 추모하는 뜻에서, 수년 전에 간행됐던 두 스님의 법어록을 재편하고 보완한 〈운봉선사 법어〉〈향곡선사 법어〉(2책1질)를 펴냈다. 두 책에는 스님의 행장과 상당, 시중(示衆), 거량(擧揚), 송구(頌句), 서간(書簡) 등이 실려있다. 책 앞부분에 스님의 영정과 함께 석정스님이 쓴 두 스님의 영찬(影讚)이 있으며, 일타스님이 원문번역은 물론 운봉스님 친필엽서 등 많은 자료를 제공했다.

한국불교 1천6백여년 선불교의 정통을 이어온 운봉스님(1889~1947)과 스님의 법제자 향곡스님(1911~1978)의 높은 뜻을 기리기 위해 향곡선사문도회는 법어집을 필요로 하는 스님들에게 법공양을 할 계획이다. (053)622-0336

법희스님의 삶과 수행 담은 '법의 기쁨 사바세계에 가득'



◇법희스님 진영

한 번은 지나가던 비구 객승이 소맷자락을 휘날리며 견성암에 찾아들었다. "비구니 도인이 하나 있다기에 어떤 인물인가 보러 왔소" 비구가 법희스님의 방으로 들어가고 조금 지나자 법희스님의 뇌성벽력 같은 할소리가 들렸다. "거물이라더니 역시 대단한 인물이구먼" 비구는 머리를 긁적이며 줄행랑을 치듯 산을 내려갔다.

민족사에서 나온 〈법의 기쁨 사바세계에 가득〉(조영숙 엮음)은 비구니스님 전기로는 처음이라는 특별한 의미도 있지만, 일반에게는 아직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법희스님의 삶 자체가 법문임을 느끼게 한다.

출가배경과 수덕사 만공선사를 찾아가 법제자가 되면서부터의 수행과 깨달음의 과정, 이후 말없는 가르침과 열반에 이르기까지 법희스님의 행장과 일화가 담겨져 있다. 한편 이 책을 간행한 수덕사 삼현문중은 15일 오후 3시 한국일보사 13층 송현클럽에서 출판기념회를 봉행한다.

태원스님 '염불의 원류와 전개사'

염불신앙의 모든것 정리



우리나라 사찰에서 행해지는 불교의식에는 거의 대부분 염불이 빠지지 않는 등 한국불교에서 차지하는 염불의 비중은 매우 크다. 그러나 정작 우리나라에서 염불에 대한 연구논문은 매우 드물 정도로 이에 대한 학문적인 체계는 전무한 실정이다.

태원스님(중앙승가대 교학처장)이 펴낸 〈염불의 원류와 전개사〉(운주사 刊)는 우리나라 최초의 염불전문연구서적이라는 의미 외에도 염불의 원류와 전개가 소승경전과 대승경전에서 어떻게 나타나 있으며, 인도·중국의 선사들이 어떻게 수용해 발전시켰는가는 검토함으로써 한국 염불신앙연구의 초석을 놓았다는데 더욱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 책은 태원스님이 97년 일본 쿄토 불교대학 박사학위논문인 '淨土往生行道中の念佛思想に對する硏究'(정토왕생행도중의 염불사상에 대한 연구)를 수정 보완한 것. 부처님을 염하는 염불사상 및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는 칭명사상(稱名思想)의 기원에서부터 인도의 조사 용수(龍樹)·천친(天親), 중국의 여산혜원(廬山慧遠)을 비롯해 영명연수(永明延壽)까지 열다섯 명의 조사들이 가지고 있는 염불사상의 특색에 대해 상세하게 논술하고 있다. 특히 선법이 중국에 전래된 이후 선과 염불의 관계를 고찰함으로써 염불사상연구의 폭을 넓히고 있다.

최초의 염불은 부처님의 법을 들거나 혹은 부처님을 친견한 후 불교에 귀의하는 입단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무불'(南無佛)을 세 번 부르는 것이다. 이것이 부처님 명호만을 부르는 것으로 발전해 완전한 칭명사상이 형성되었으며, 이를 하나의 수행법으로 채택한 것이 염불수행이다.



칭명사상은 염불을 하면 공덕이 생기게 된다는데서 비롯됐으며, 이는 부처님이 설하신 법과 모든 부처님이 찬탄한 명호를 듣는 사람은 똑같은 득과가 생긴다는 대승불교의 문명사상(聞名思想)으로 이어졌다. 특히 〈관무량수경〉의 '칭나무아미타불'은 염(念)→칭염(稱念)→칭명(稱名)으로 발전되는 대전환기를 마련해 후대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고 태원스님은 밝히고 있다.

용수·무착 등 인도 조사들의 염불사상은 현생에서의 득익에 중심을 두고 있으며, 천친은 법신과 상응해 하나가 된다는 법신염불의 형태를 보이고 있음을 밝혔다.

중국 초기불교의 염불사상에서 혜원의 염불은 이사겸수(理事兼修)적인, 즉 조용한 상태에서 염불에 전념하면 빈뇌를 소멸하는 염불로 규정했다. 또 수당(隋唐)시대 이후 홍인문하 선승들부터는 이전의 염불을 위주로 한 수행은 조금씩 희박해지면서, 모든 수행을 함께 해야 한다는 선정겸수(禪淨兼修) 및 제행겸수(諸行兼修)의 염불 풍조가 행해졌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명우 기자

'차가 있는 삶' '생활속의 다도' 茶책 두권

"차는 우리 생활의 흐름과 같은 것으로 비유된다. 쓰고 시고 짜고 단맛과 같은 우리의 삶. 여기 두 권의 책은 삶을 풍요롭게 하는 철학을 담은 차의 모든 것을 담아냈다.

전통차문화원장 이연자씨가 펴낸 〈차가 있는 삶〉(초롱 刊)은 차의 덕과 멋, 미용과 질병예방, 차속에 깃든 효와 예에 이르기까지 차에 대해 포괄적 안내를 하고 있다. 특히 작명과 성인식, 혼례 등의 통과의례때 치르는 차례(茶禮)와 그 의미에 대한 부분은 눈여겨볼만하다.

소안다도문화원장 박필금씨가 쓴 〈생활 속의 다도〉(삶과 꿈 刊)는 참선다례법, 일상생활다례법, 음양오행다례법 등 각종 행다법과 함께 차의 기원, 다구와 그 사용법, 옛 다인들의 차 예찬시 등을 실었다. 각 항목 설명마다 컬러사진을 곁들여 보는 이의 이해를 돕고 있다.



책방여시아문 '초파일 특판코너'

책방 여시아문은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부처님 생애와 말씀 등을 담은 책 50여종을 전시한 특화코너를 마련했다.

특화코너에는 〈부처님 생애〉〈붓다의 가르침〉 외에도 불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불교상식백과〉〈불교교리〉 등과, 〈생활속의 불교〉 등 신행생활에 도움이 되는 책들을 선보이고 있다.

"좋은 자녀를 낳고 싶으면…"

성우스님 '태교 에세이' 펴내



성우스님(파계사 주지)이 펴낸 〈태교에세이〉(토방 刊)는 태교명상법을 통해 자신의 영혼을 깨끗이 해야만 그만큼 성숙된 삶 속에서 훌륭한 영혼을 가진 아이가 태어난다고 강조한다.

그리고 좋은 자녀를 두고 싶다면 남자도 청소년 때부터 마음과 몸을 깨끗이 해야 함은 물론 남성 이기주의를 버려야 한다고 충고한다. 임신하고 난 후 여성이 꼭 지켜야 할 지침도 제시하고 있다. 거짓말을 하거나 술과 담배는 물론 난잡한 책을 보아서도 안된다. 특히 태아는 임산부의 마음까지도 알고 있어 거짓말 하는 임산부의 아이는 결국 어머니를 속이게 된다고 말한다. 또 심리적인 안정이 필요할 때는 마음을 흔들어 놓는 책보다 경전을 읽는 것이 가장 좋으며, 특히 부처님이 말씀하신 진리에 의지해 태교를 실천하면 IQ와 EQ가 높은 자녀가 태어날 수 있다고 권한다.

새로나온 책

▲부처님 생애=부처님의 탄생에서부터 출가, 성도, 열반에 이르기까지의 생애를 알기 쉽게 서술해 부처님의 삶과 고민, 깨달음 그리고 그 핵심사상을 단숨에 읽어나갈 수 있도록 했다. '히말라야의 탄생과 카필라성에서의 나날들' '깨달음의 여정' '교화의 나날들' '열반의 땅을 향하여' 등 4부로 구성돼 있다. 1백40여쪽으로 정각스님(동대 대학원 불교학과)이 엮었다. 〈운주사 4천원〉



▲신비의 환선굴=지난해 세상을 떠난 향토문화연구가 박재문씨의 유고집. 고인의 문화와 문학에 대한 열정과 불교사상이 고스란히 걸려있다. 천은사 영은사 선흥사 삼화사 관음사를 소재로 한 시조는 각 절의 역사와 주변광경을 서정적으로 묘사하면서 자신의 심경을 이렇게 토했다. '공수래 공수거의 참진리 깨우쳐서 죄없이 나머지 여생 시름없이 살고파' 〈문화출판사, 5천원〉



▲한권으로 읽는 삼국왕조실록=고구려, 백제, 신라의 얽히고 설킨 흥망성쇠를 한 눈에 읽을 수 있는 교양인문서. 왕조의 변천을 종부하게 이야기하면서 중간 중간 적절한 해설을 곁들이고, 중요 항목을 몇가지로 한정해 요약 도표와 지도를 통해 설명하므로써 읽는 재미와 정보의 시각화를 꾀했다. 그동안 신화적 이야기로만 서술됐던 역사적 사건들도 새롭게 조명하고 있다. 〈들녘, 1만2천원〉



▲눈물의 여왕=조계종 국제포교사 차길진 법사의 실화소설(전2권)로 빨치산 토벌대장 차일혁 총경의 일대기를 사실적으로 그렸다. 차법사는 차일혁 총경의 아들. 93년 출간된 〈빨치산 토벌대장 차일혁 수기〉〈애정산맥〉과 기타 방대한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소설로 재구성했으며, 사랑과 이념 사이의 갈등과 사상을 넘어선 뜨거운 민족애가 서사시처럼 펼쳐진다. 〈창해, 각권 7천원〉



불국토 구현위한 사회현상 반성

불국의 아침을… 운월스님 지음

"병없는 것, 그것이 제일 큰 이익. 족할 줄 아는 것, 그것이 제일 큰 재산. 좋은 친구, 그것이 제일 가까운 사람. 열반, 그것이 제일 큰 행복." 역경승 구마라집의 게송중 한부분이다. 〈불국의 아침을 여는 풍경소리〉에는 우리의 삶 속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게 해 불국토를 구현하자는 운월스님(불교여래원 원장)의 발원이 갖가지 사회현상을 통해 투영되고 있다.

결혼문화에서부터 양육, 폭력, 환경문제 등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과 함께 자신을 버리는 희생과 참회가 필요한 때라는 꾸짖음이 담겨있다. 그리고 끊임없이 정진하면서 부처님과 같은 마음으로 살라는 가르침을 전한다. 고통스런 세상을 이겨내고, 차갑고 외로운 곳에서 신음하는 사람들을 위해 살라는 교훈과 함께.

〈대흥기획 7천원〉

화제의 책

현대인이 꼭 알아야 할 반야지혜

…98가지 반야심경 대우스님 편역



누에는 네 번이나 허물을 벗고 나서야 그 아름답고 고운 명주실을 뽑는다. 인간 역시 번뇌의 허물을 벗어야만 참다운 삶의 빛을 발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이치.

〈현대인이 꼭 알아야 할 98가지 반야심경〉은 반야심경을 통해 삶의 의미를 반추하고, 반야심경을 정도(正道)를 제시해주는 가장 가까운 친구로 삼으라고 권한다.

삶과 죽음, 평범과 비범, 쾌락과 번뇌, 공포심과 평안한 마음 등 10개의 주제아래 반야심경에 나타난 98가지 이야기로 구성돼 있으며, 반야의 지혜를 생활화하고 삶의 슬기와 지혜를 체득할 수 있게 하면서도 흥미롭고 쉽게 얘기를 풀어나가고 있다. 해설과는 다른 현대어로 번역한 글도 부록으로 싣고 있다.

〈문학풍경 6천5백원〉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 서 명	저·편자	출 판 사
1	생활속의 참법수행	현대불교신문사	여시아문
2	생활속의 기도법	일 타	효 림
3	성자와 범부가 함께 읽는 금강경	윤 율 순	신 우 당
4	불보살 명호이야기	이 윤 수	민 족 사
5	불교입문	조계종편집부	조계종출판사
6	가슴을 적시는 부처님 말씀 3백가지	성우·지현	민 족 사
7	참선교육	현 담	조계종수선회
8	스님의 맨발	한 승 원	문학동네
9	불교사상의 이해	동국대불교기획편찬위	동국대불교문화대학
10	남산이 북산을 보고 웃네	맹 란 자	세훈출판사

구입문의:(02)737-0695

예불을 통한 불보살의 가피!!

예불, 그 속에 깃든 의미

의미를 알면 믿음이 서고, 의미를 알면 실천이 쉽고
의미를 알면 성취가 빠릅니다.

많은 불자들이 아침·저녁으로 예불문을 외우며 절을 합니다. 맑디 맑은 신심을 바치며 절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예불문 속에 우리나라 불교신앙의 진수가 담뿍 담겨 있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거의 없습니다. 예불문 속에 깃들어 있는 의미를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 예불을 올린다면 참된 예불은 물론이요 삼보의 가피를 쉽게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불자들이 궁금해 하면서도 마땅히 답을 얻기 어려웠던 이런 저런 궁금증들……. 이 땅에 정착된 불교신행의 진수를 이 한 권의 책 속에 모두 담았습니다.

김현준 지음 / 신국판 / 5,000원

제2회 불교출판문화상 대상(저작상)수상작

사찰, 그 속에 깃든 의미

"절에 가면 궁금한 것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초심자뿐만 아니라 오래 절을 다녔어도 무심히 흘려보냈던 사찰 곳곳에 간직되어 있는 숨겨진 의미들…. 사찰 속의 모든 것은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불교의 정신이 창출한 하나의 생명체인 것입니다. 사찰 초입(一柱門)의 일주문에서부터 사물(범종, 법고, 목어, 운판), 석등, 탑, 그리고 여러 법당 등에 담겨진 의미와 구조, 변천 등을 깊이 있게 다룬 이 책은 독자들에게 불교예술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열어줄 것입니다.

김현준 지음 / 신국판 / 7,000원

행복한 삶을 이루게 하는 불교신앙의 지침서

관음신앙 관음기도법

관음기도는 어떻게 해야됩니까?
관세음보살은 어떤 분이신가요?
알고 계십니까?

이 책에는 관음신앙의 뿌리에서부터 관세음보살의 구원능력, 상황에 따른 여러가지 관음기도법 등 관음신앙에 대한 모든 것이 알기 쉽고 재미있게 풀이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불자들 대부분이 신봉하고 있는 관세음보살! 관음의 가피를 바라고 기도성취를 원한다면 꼭 이 책을 곁쳐 드십시오. 훌륭한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김현준 지음 / B6 / 3,500원

·법보시를 원하시는 분은 출판사로 연락을 주십시오.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동서출판 효림 전화 : (02) 587~6612 · 팩시밀리 : (02) 586~9078